

44장 참하나님과 우상

1.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44:1-5)

이스라엘은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죄만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테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44:2).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혹은 계속하여 죄를 짓더라도 ‘나는 그’ 이신 분이 이스라엘을 새로 지으실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여수룬’ 곧 ‘올바른 자’라고 불러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사막에 강을 내어서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막에 길을 내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주님의 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32:15).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을 시내처럼 부어 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2. 살아 계신 여호와 (44:6-8)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처음이고 마지막임을 선언하신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 구원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3. 헛된 우상 (44:9-20)

이어서 그러한 하나님과 대비하여 우상의 헛됨을 지적하시고, 동시에 ‘우상의 증인들’도 헛되다고 지적하신다. 먼저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가 수치를 당할 것을 선언하시고(44:9-11),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하신다. 사람은 동일한 나무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빨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상의 증인들은 그러한 모순을 깨닫지 못한다(44:12-17). 그들은 다만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파멸시킬 뿐이다(44:18-20).

이렇게 여호와와 우상,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의 헛됨을 대비하여 지적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이 미혹된 데서 벗어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나라한 비유까지 사용하실 정도로 낮아지셨다.

4. 여호와의 초청 (44:21-23)

우상과 그 섬기는 자들의 헛됨을 지적하신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신 사실과 그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신다. 그들을 지으시고 또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여호와의 행하신 구원을 보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초청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 만물이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세상 만물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5. 찬송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44:24-28)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고 그 백성을 모테에서부터 지으신 분이다. 소경과 귀머거리를

회복하시는 일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능력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인데, 예언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히신다. 그는 “동방에서 온 사람” (41:2)으로서 하나님의 ‘중’과 ‘목자’다(44:26, 28).¹⁾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다.²⁾

묵상과 실천:

그리스도의 사랑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43:3-4),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는 데에서도 주님의 큰 사랑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때때로 전도하는 일이나,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을 강박적으로 드러내며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본문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본문에서 증인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지어서 ‘너희는 증인이다’ 하고 선언하셨다. 즉 그들의 새로운 존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다.³⁾ 이 사실을 놓친 채 자기의 많은 증언 활동을 주님 앞에서 자랑한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명되어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참조. 마 7:23).

44장 익힘 문제

1.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진 분이십니까? (2절)
2.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2절)
3. 44장에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와 구속주와 대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9-20절)
4.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 부르며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데서 풀어 주고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8절)

1)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44:26을 “내 중의 말을 옹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로 옮겼다. 그런데 직역하면 “그의 중의 말을 옹하게 하며 그의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거기 살리라”로 이어진다. ‘그의 중’과 ‘그의 사자’를, 대화체 안에 나오기 때문에 ‘나의 중’과 ‘나의 사자’로 옮겼다. 그렇지만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3인칭으로 표현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거기 살리라” 하는 말의 화자는 여호와이시다. 그렇지만 ‘그의 중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은 고레스의 말로 이해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은 고레스의 말이지만, 동시에 여호와와 중으로서 그가 한 말이기도 하다.

2) 이사야 44:24-45:7을 ‘고레스 찬가’(Cyrus Song)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고레스에 대한 언급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레스 찬가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박종수, “고레스 찬가 (사 44:24-45:7[8])”, 80-104.

3) 존 오스왈트, 『이사야』, 662-663.